

# 주요 대기업 납품대금 6.3조원 설 2주 전 조기 지급

### 78% 납품대금 조기지급 참여...지역봉사 등 상생활동도 펼쳐 설 선물 우리 농축산물 우선 구매·협력사 무이자 등 금융지원

주요 대기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지역 사회 봉사,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상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일 “2025년 협력사 납품 대금 지급 현황 및 2024년 실적 조사”에 참여한 주요 대기업 78%가 하도급 및 납품 대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

코, 롯데, 한화 등 18개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지급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납품 대금 지급은 평균적으로는 설 명절 2주 전에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대기업들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활동도 펼치고 있다. 삼성은 주요 계열사와 협력해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를 장려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현대차도

를 주요 계열사와 함께 취약계층에 생필품과 지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난방용품과 차량을 기증했다.

SK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식품과 난방용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자금도 운용 중이다.

LG는 취약계층에 생필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펀드를 포함한 1조23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와 롯데는 설 제례용 음식 키트를 제작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한화솔루션은 여수와 울산 공장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물품을 지원한다.

성은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와 ‘사랑의 생필품 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신세계는 복지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에 2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고, GS, CJ, 한진은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온라인몰을 운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S와 KT는 협력사에 무이자, 저리 대출 제공 등 상생협력 자금도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3일 회원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협력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설 명절 선물 시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설 연휴 전후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독려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등을 권장하는 ‘내수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 영산포 영산홍어 찾아 수출 증대 관세행정 약속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이 지난 16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에 소재한 홍어식품 전문기업 영산홍어(주)를 방문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홍어식품 가공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영산홍어(주)는 홍어 가공 2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특산품인 홍어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홍어 식품 뿐만 아니라 홍어 껍질, 연골 등을 사용하여 홍어콜라겐젤라틴 등 건강기능식품과 로션, 마스크 팩 등 기능성 화장품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과 홍어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홍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 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삼성전자 ‘뉴 갤럭시 구독’ 기존 제품 반납 50% 보상

삼성전자가 오는 24일부터 갤럭시 스마트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서비스를 개시한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 대상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하는 갤럭시 S 시리즈 구매 고객부터로,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최대 50% 잔존가 보장 혜택으로는 서비스 가입 고객이 12개월간 제품 사용 후 반납 시 삼성닷컴 기준가의 50%, 24개월간 제품 사용 후 반납 시 기준가의 40%를 보장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기기를 반납에 구매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월 구독료는 삼성카드 결제 시 가입 가능하며 5900원이다.

제품 보상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전원 미작동, 외관상 파손, 계정 미삭제를 제외한 흡집이 있는 단말기를 모두 반납 가능하며, 반납 후 신규 단말기 재구매 조건도 없다.

또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혜택으로는 ▲가입 기간 동안 파손 보상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 서비스 ▲배터리 교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케이스, 배터리백 등 정품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85㎡ 이하로 규제 완화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추가 면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0.05 (-3.50)
↑ 코스닥	727.66 (+2.97)
↑ 금리(국고채 3년)	2.623 (+0.035)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48.05 (-10.25)

## 광주은행 이주배경 학생 ‘다다캠프’ 성료

### 14~17일 4일간 중학생 70명 참여 창의적 사고·자기주도 학습 증진

광주은행이 지난 14~17일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다(多)채로운 다(多)문화 캠프(다다캠프)’를 진행했다. (사진) 다다캠프는 지난 2023년 여름방학에 처음 시작해, 여름·겨울 방학 시즌마다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4회차를 맞은 ‘다다캠프’는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꿈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JB금융그룹의 핵심사회공헌 사업이다.

특히 이번 캠프는 호남지역 이주배경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증진에 집중했다.

우선 인기도서 ‘WHY’의 저자인 조영선 작가를 초청해 과학적 사고에 대한 강연, 게임적 사고와 과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한 보드게임 만들기, 꿈 Dream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어 ‘생각장리클래스’의 복주환 대표를 초청해 진로 계획 수립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또 참여 학생들은 국악 비보잉 팀인 ‘라스트릿 크루’의 공연을 관람하고, 마지막 날에는 프랑스 국악인 ‘마포 로르’를 초청해 외국인인 바라본 한국의 문화와 국악의 매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다캠프’를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에는 광주은행 소속 스포츠단



‘텐텐(Ten Ten) 양궁단’과 ‘비츠로(VITZRO) 배드민턴단’이 재능기부로 참석해 양궁, 배드민턴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는 등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협동심과 집중력, 인내심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국세청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 박광중 청장 등 말바우시장 찾아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박광중 청장과 40여 명 직원들은 직접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점심 식사도 시장 내에서 함께 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또 말바우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에

서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박 청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도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했다.

장보기 행사 직후 박광중 청장은 아동·청소년 복지단체인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돈보스코 나눔의집’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오비맥주 4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글로벌 인사평가 기관 인증

오비맥주가 글로벌 인사평가 기관 ‘최고 고용주 협회(Top Employers Institute)’로부터 ‘2025 최우수 고용기업(Top Employer)’에 선정됐다. 올해 4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으로 선정된 오비맥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국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최고 고용주 협회는 매년 121개국 2300여 개 기업을 평가해 ‘최우수 고용기업’을 발표한다. 협회는 기업의 운영, 조직, 채용, 직원 역량 개발, 직원 교류, 융합 등 6개의 인사 영역에서 350개의 문항을 구성, 전방위적 설문조사, 전문가 집단 종합 평가와 교차 검증 등을 통한 심층 평가를 벌였다.

오비맥주는 6개의 인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근무환경, 비즈니스 전략, 인사 전략, 리더십, 조직 최적화, 윤리 관행 등 10개 부문에서는 100점을 받아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쓴 점을 인정 받았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직원 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어온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 혁신과 구성원들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신세계, 한파 대비 이색 방한 패션 아이템 선보여

### 덕다운 고글 패딩 등 눈길

광주신세계가 24절기 가운데 일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1월 20일)을 맞아 고글패딩, 부츠삭스 등 다양한 방한용품을 선보인다.

우선 본관 6층 프리미엄 아동복 편집숍인 ‘리틀그라운드’에 입점한 ‘AI 리더스’ 매장에서 최근 출시한 ‘덕다운 고글 패딩’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사진) 덕다운 고글 패딩은 일반 패딩처럼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강풍이 불 때는 부착된 모자 지퍼를 잠금 방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파를 완전 차단하면서도 고글 및 메쉬 소재를 활용해 시야와 청각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같은 층에 있는 아동 슈즈 멀티 브랜드 ‘TOE BOX’의 ‘헌터’ 매장에서는 ‘키즈 부츠 삭스’를 선보인다.

부츠 삭스는 헌터 대표 제품인 레인부츠에 끼워 보온효과를 극대화하고, 블랙과 화이트 등 다양한 색감을 활용해 디자인 역시 호평받고 있다.

프리미엄 아동복 브랜드 ‘에프와’에서는 아이들의 방한을 책임지면서도 이색적인 디자인을 지닌 아동복이 눈길을 끈다. 일명 ‘팬더 우즈북’으로 불리며 SNS를 통해 유행하고 있는 ‘후이 우즈북’은 12~18개월 아동을 입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인기



를 입고 있는 쌍둥이 팬더 ‘후이 바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에프와는 오는 31일까지 방한용품을 대상으로 2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고글 패딩과 부

츠 삭스처럼 뛰어난 보온성과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광주신세계를 방문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모집

### 수출기업 최장 3년간 2억 지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가 도내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을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도 특화정책 지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글로벌 IP스타기업에 선정되면 연간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최대 2억1000만원까지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핵심요소인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에 서부터 OA, 등록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특허기술활용전략(특허맵),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디자인활용전략(디자인맵), 브랜드(신규, 리뉴얼, 비영리권)개발, 디자인(제품, 포장, 목업) 개발, 지식재산 경영진단 컨설팅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